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6.29

청소년靑少年  
6월29일(수)  
오후4시~9시

중앙역

5.25

청년靑年  
5월25일(수)  
오후4시~9시

한대앞역

4.27

역사歷史  
4월27일(수)  
오후4시~9시

상록수역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



7.27

생명生命  
7월27일(수)  
오후4시~9시

고잔역

8.31

다문화多文化  
8월31일(수)  
오후4시~9시

안산역

9.28

노동勞動  
9월28일(수)  
오후4시~9시

초지역

유쾌한 문화선들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찾아옵니다.

수水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July / August 07 / 08 2016 VOL. 55



07/08

July / August  
2016 VOL. 55

# CONTENTS

발행일 2016 7·8월호(통권 제55호)·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기획 김선광(기획홍보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31-481-4046 팩스 031-481-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 Special

08 ASAC 초대석 | 無地에 써내려간 몸짓의 빛깔들 무용가 김보람

## ASAC Stage

- 16 Stage 1 |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
- 22 Stage 2 | ASAC아침음악살롱3\_현악파르벳 〈솔리 판 투티〉
- 26 Stage 3 | 2016 ASAC몸짓페스티벌 [몸짓으로 통한다!]

## Culture People

- 32 안산의 젊은 예술인 | 이섬승
- 36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39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극단 걸판」

## Culture 心터

- 44 新 문화로드
- 48 전시리뷰

## News

- 54 2016단원미술제 | 서예·문인화展
- 58 여름기획전
- 60 안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 61 문화예술 전시정보

## ASAC Essay

비 개인 여름 아침

- 김광섭

비가 개인 날

맑은 하늘이 못 속에 내려와서

여름 아침을 이루었으니

綠陰이 종이가 되어

금붕어가 시를 쓴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한민국소극장열전 20:00 / 별무리극장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14:00 / 달맞이극장	2 안산성가합창제 19:00 / 해돋이극장 임시설명회 13:00 / 달맞이극장 대한민국소극장열전 20:00 / 별무리극장
3 대한민국소극장열전 15:00 / 별무리극장	4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5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6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7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8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9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0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1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2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3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4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5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6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7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18 다문고 졸업공연 19:00 / 별무리극장	19 희망소리합창페스티벌 19:00 / 달맞이극장 다문고 졸업공연 14:00 19:00 / 별무리극장	20 주민자치위원연수 09:30 / 달맞이극장	21 피아노 리사이틀 19:30 / 달맞이극장	22 희망사랑나눔콘서트 19:30 / 달맞이극장 어중씨이야기 20:00 / 별무리극장	23 어중씨이야기 15:00 19:00 / 별무리극장
24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25 하반기 무대안전점검	26 상인 경영대학 졸업식 13:30 / 달맞이극장	27	28 아시테지 몬스터 11:00 14:00 / 별무리극장	29 아시테지 몬스터 11:00 14:00 / 별무리극장	30 아시테지 지구사용설명서 11:00 14:00 / 별무리극장
아시테지 지구사용설명서 11:00 14:00 / 별무리극장	31					

기 획 공연 / 대 관 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별무리극장	5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별무리극장	6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별무리극장
7	8	9	10	11 안산X도쿄 10분 연극전 / 별무리극장	12 안산X도쿄 10분 연극전 / 별무리극장 여름미오페스티벌	13 안산X도쿄 10분 연극전 / 별무리극장 여름미오페스티벌
14	15	16	17	18 스놀리의 선물가게 10:10 11:30 / 해돋이극장	19 스놀리의 선물가게 10:10 11:30 / 해돋이극장 박진영피아노학원 정기연주회 19:00 / 별무리극장	20 안산시립합창단 17:00 / 해돋이극장 이원국발레단 춘향 17:00 / 달맞이극장
21	22	23	24	25	26 몸짓 열토당토 20:00 / 별무리극장	27 휘성콘서트 19:00 / 해돋이극장 몸짓 심폐소생술 연습 / 달맞이극장 몸짓 열토당토 20:00 / 별무리극장
28	29	30 아침을아실롱3 11:00 / 달맞이극장	31 몸짓 소방훈련 시나리오 / 달맞이극장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08 ASAC 초대석 | 無地에 써내려간 몸짓의 빛깔들 무용가 김보람

# Special

## 無地에 써내려간 몸짓의 빛깔들

# 무용가 김보람

피고 지고 다시 나는 생명력, 그 끈질긴 새로움을 닮은 춤꾼 김보람과의 인터뷰가 오랫동안 각인된다. 인간의 사소한 몸짓으로부터 이해되는 그의 춤은 인간의 희·애·락을 넘어 또 다른 감정으로 이해된다.

### 물들다+色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수장 김보람,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그와의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 오감에 따라 시나브로 짙은 색의 향연으로 물들어 갔다. 이는 그의 남다른 외모도 이유고, 그가 이끄는 팀의 팀명도 이유라면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정작 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그. 그리곤 이내 미소를 건네는 그. 이처럼 규정되지 않은, 또 규정되어짐에 익숙지 않은 그에 대한 궁금증에 절실한 물음표가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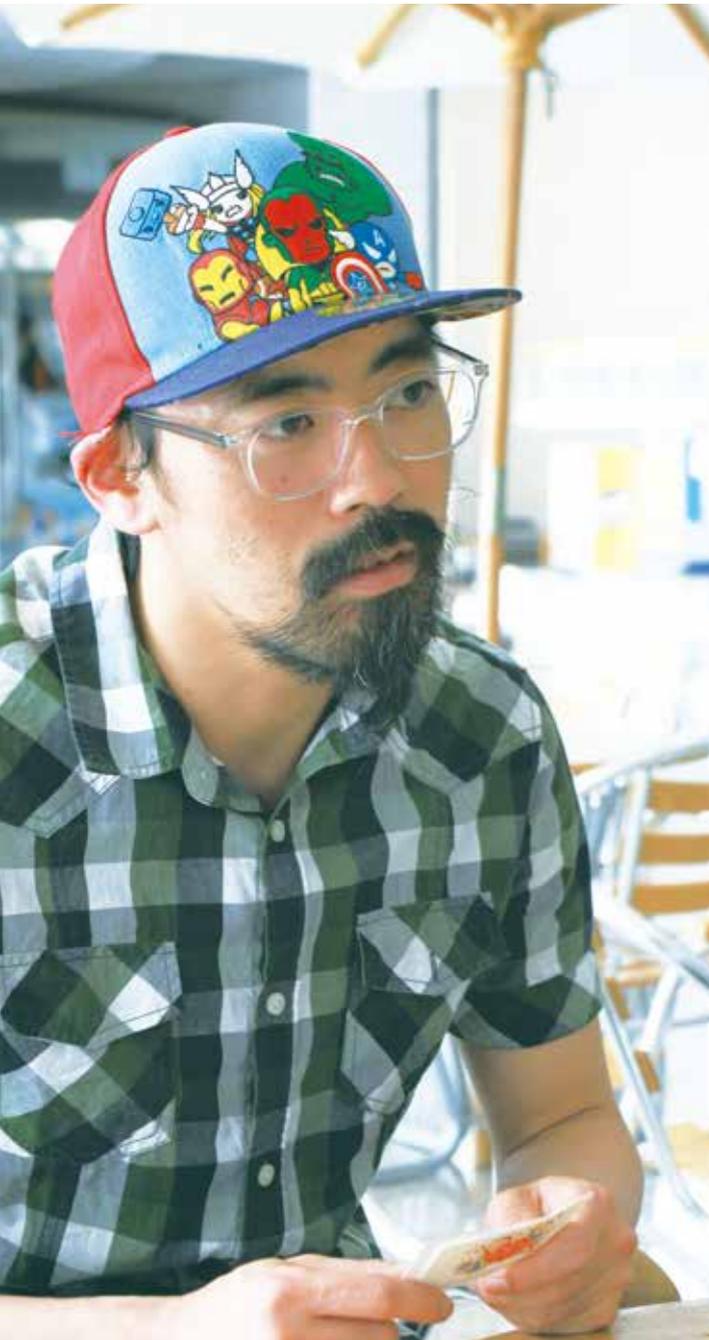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대표 김보람은 처음부터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진 않았다. 특이한 이력이다. 요즘처럼 너나할 것 없이 석·박사를 자처하는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어찌 보면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무대서처럼 몸으로 그것들을 현실화했고,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이자 춤꾼으로 자리했다.

이러한 그는 작은 점하나, 그 어떤 색도 칠해지지 않은 무명원단의 한양 캔버스를 스스로의 색으로 규정한다. 색이 칠해지고 덧입혀짐에 따른 변화무쌍함을, 그리고 규정되지 않은 색의 향연처럼 자신을 물들이겠다는 스스로의 고해이자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말한 듯하다.



**ambiguous** 미국·영국 [æmbrɪˈdʒjuːs]

1.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2.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애매한



### 앰비규어스+Ambiguous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희 팀이 추구했던 장르의 모호성, 즉 현대무용도 힙합도 스트리트댄스도 아닌 제약 없는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다소 장난스러운 팀명으로 정했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태동에 대한 궁금증 하나가 해소됐다.

단어 그대로 애매모호한, 그래서 경계 없는 양태(樣態)의 예술을 지향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소통이 가능한 팀으로서 여전히 성장 중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수장 김보람에겐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해준 은인이 존재한다. 무용가故 김기인 교수와故 강은영 선생이 그들이다. 아쉽게도 이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에겐 여전히 영감과 열정을 고스란히 전하는 선구자와 같다. “두 분 모두 저에겐 은인이시죠. 저에게 무용과 춤에 대한 여전한 각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순수한 애정에 답해야겠죠.”

현재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정단원 6명과 객원 서너 명이 함께 활동 중이다. 이러한 그들은 현재 춤과 무용이라는 장르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작품의 연구·개발과, 무용은 어려운 예술 또는 삶과 연관성 없는 자기들만의 형태가 아닌 좀 더 깊숙이 들어가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르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

### 계가순수의 이기적 유전자

“사실상 욕심이 크게 없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낼 수 있는 욕심이 다소 떨어졌었죠. 예를 들어 학창 시절에 누구나 욕심낼법한 학업성과 같은 것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경제적 풍요를 위한 몸부림들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온전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과 무용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와



66

현대무용인지 힙합인지 스트리트댄스인지 어느 하나의 범주에 들지 않은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다소 장난스러운 팀명으로 정했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99

관련한 질문에 그가 답변한다.

욕심이 많지 않던 청년이 오늘날 성인이 되어 그것도 자신의 꿈을 찾아 여전히 두박두박 인생의 조각을 맞춰가고, 또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무용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서 가능한 일일까?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는 카오스같은 세상에서 말이다.

이에 김보람은 “목적을 가진 인간관계 대신 당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오롯한 사랑과, 제 스스로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를 애초부터 안했던 것이죠. 결국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스승 같은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연스레 그분들과의 관계가 편안한 소통으로 이어져 소리 없는 울림처럼 저에게 학습된 거죠. 결국 오늘날의 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라며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은 순수한 삶의 방식을 통한 생장(生長)을 말한다. 그의 이러한 답변에 가볍게 수긍이 간다. 그의 순수한 이기적 유전자를 내 몸에 이식한 듯이,

### 태초의 몸짓+communication

그동안 다양한 장르의 무용가들과 만나면서 나름 품고 있었던 궁금증 하나가 ‘춤이란 무엇인가?’다. 다소 뜬금없고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궁금증. 하지만 태초부터 인간의 몸에 응축되어 이미 기억되어버린 것들이 그저 몸쓸 몸짓으로 또는 의미 없는 행동으로 표출된다 하더라도, 강렬한 몸짓으로 진화된 몸무림이 오늘날의 춤이고 다양한 장르로 발전한 것이 사실. 그렇다면 과히 의미 없는 궁금증만은 아닐 터. 그래서 김보람에게 물었다.

“춤이요? 움직임 자체가 춤이고 평범함 그 자체죠. 일상의 모든 것이 춤이 될 수 있듯 그렇게요. 저희 팀 공연 ‘언어학(Linguistics)’에서처럼 인간이 가진 내면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춤이 됩니다. 현대사회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절제를 요구받죠. 그리고 언어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소통에 대한 방법적 가치와 그 장벽을 넘기 위한 우리의 시도가 춤이고 관객과 댄서, 그리고 그것들을 담는 공간자체도 결국은 춤입니다.”

그의 생각이 확고하다.

인류의 진화과정에 있어 몸짓을 통한 의사소통은 필수적 요소였을 것. 동물적 울음소리도 작은 몸짓도 그들에게겐 소중한 소통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원초적, 즉 필요에 의한 절실함 그것이 오늘날 춤으로 진화했고 인간의 감정선을 고스란히 담은 진화된 몸짓이 춤일 수도 있겠다. “잘 추고 못 추는 춤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웅얼이 같은 몸짓도 춤이고 음악에 맞춰 자신만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도 춤이며, 상상하는 마음 속 그대로를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춤이죠. 즉, 우리네 일상의 모든 것이 춤이 될 수 있습니다.” 춤에 대한 그의 명쾌한 답변이다.

안산+dancing with me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공연의 특징 중 하나는 공연 후반부에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 시간을 통해 관객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공연만 보고 가시는 관객들, 그리고 공연 후 훌쩍 무대를 떠나는 저희까지 서로 간의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한 공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공통분모 없이 남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따라서 안무자와 관객 간의 대화를 통해 각자가 느낀 감정을 공유하고, 때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계산된 대화시간은 작품의 재발견과 발전을 모색하는 또 다른 이해의 자리로도 활용된다.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찰나의 순간을 통해 얻은 관객들의 작은 목마름도 자신들의 값진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킬 줄 아니 말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바랐던 공연의 형태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김보람일지도 모르겠다. 더불어 모든 관객들이 그와 함께 무대에 올라 다양한 몸짓의 향연으로 하나 되고, 무용에 대한 재해석으로 새로운 무용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무용가 김보람은 우리 몸과 마음, 즉 내면의 알 수 없는 꿈틀거림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외적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인간의 원초적 갈등을 새로운 가치의 전환으로 이끌어낸다. 특히 그것이 훌륭하던 아니면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몸짓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일까? 누구나 춤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길 기도하며,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와 함께 몸짓으로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마냥 다시 기다려만진다. **무한**

글 노호성

Mini Interview



안산문화재단 무용을 시작한 계기도, 본격적으로 전공한 계기도 남다른 것으로 안다

김보람 무작정 댄서가 되기 위해 고향인 원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고, 많은 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김기인 선생님을 만나 무용이 아닌 춤을 배울 수 있었다.

안산문화재단 무용과 춤이 다른 것인지, 다르다고 정의할 수 있지만 결국 인간의 정신을 표현한 또 다른 언어가 아닌가?

김보람 잘 이해해 줬다. 다만 하나를 보태 설명하고 싶다. 결국 움직임 자체가 춤이고 언어인데, 춤을 특별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평범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로서 의무감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

김보람 그렇다. 상주예술단체로 활동하기를 정한 순간부터 안산 시민여분들에게 무용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물론 쉽지 않다. 우리 입장에선 무용이 무용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관객의 입장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중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임을 서로가 알아야 한다. 결국 무용수들과 관객 간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야만 한다. 큰 과제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고민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여러 예술가들과 예술분야와의 콜라보도 이어오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공연은

김보람 지난 3월 고선웅 연출가님과 함께 했던 작품 ‘한국인의 초상(肖像)’으로 협업했다. 사실 콜라보를 즐겨하진 않는다. 낯가림이 심한 성격 때문이다. 고선웅 선생님께셔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다.(미소) 하지만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고 역시 배울 것이 많았다.

안산문화재단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 또는 염두에 둔 공연방식이 있는지

김보람 올해 관객개발사업 두 가지가 있다. 8월과 11월로 계획된 시민워크숍이 그것이다. 워크숍을 통해 시민여분들과 춤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안산문화재단 지난 2014년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체결 후 현지로의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김보람 작년 북미 최대의 공연예술마켓으로 불리는 뉴욕 APAP에 ‘인간의 리듬’ 쇼케이스 공연에 참가했다.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팜스 초이스’에 선정된 후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고, 두 차례 쇼케이스를 열어 반응도 좋았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단 올해 말 정도부터 미국 내 7개 주를 투어하기로 되어있다.

안산문화재단 본인이 생각하는 무용이란 무엇이며, 향후 춤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하다

김보람 어떠한 이야기 보다는 내가 가진 몽상가적 기질을 바탕으로 봤을 때, 먼 미래 몸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인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춤을 추는 이유는 언어로써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를 찾는 게 수십 년 후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다소 슬플 수 있으나 먼 이후 춤을 출 수 없을 때를 상상해 본적이 있는지

김보람 당연하다. 하지만 춤을 출 수 없어도 굳이 슬플 것 같지 않다. 춤을 추면서 늘 생각해 온 것 중 하나가 춤이 내 삶의 전부라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온 세상에 춤이 존재하는 이상 세상은 춤추듯 돌아가고 사람들은 춤추듯 살아갈 것이다. 결국 나도 춤추듯 살아갈 것이기에 슬프지 않을 것이다.

안산문화재단 가족 같은 단원 분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는가

김보람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 춤을 직업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는 춤을 좋아해서다. 춤을 추는 사람이 그 이유가 가장 크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하지만 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무용수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즐거울 때 추는 춤만이 춤이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 힘들고 슬플 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친구는 변함없는 친구이듯 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한다.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민여분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는

김보람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우리 공연이 있을 때 로비가 안산 시민들로 붐벼 티켓을 구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황을 먼저 만들어주실지 반문을 드리고 싶다.(미소)

# ASAC Stage

- 16 Stage 1 |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
- 22 Stage 2 | ASAC아침음악살롱3 현악과르벳 〈솔리 판 투티〉
- 26 Stage 3 | 2016 ASAC몸짓페스티벌 [몸짓으로 통한다!]



#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극 페스티벌인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안산을 찾아온다.

이번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에서는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3개 작품을 비롯한 안산문화재단의 상주예술단체로는 처음 선정된 「극단 걸판」의 '어중씨 이야기'까지 더해진 다양한 재미의 4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단원미술관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진행된다. 복잡한 휴가철, 시원한 극장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대 50%의 가족할인율이 제공된다.

아시테지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아동·청소년연극 전문공연단체 및 예술인들이 모인 비정부·비영리 국제기구로 어린이·청소년에게 연극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위해 연극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극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인 공연교류 및 네트워킹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구사용설명서



후아유



어중씨 이야기



몬~~~~스터

### 극단 걸판 어중씨 이야기

#### 시골마을 어중씨의 유쾌한 허탕

도야마을에 '어중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 어떻게든 느리게 살아보려다 자꾸만 어중간해지는 어중씨. 해가 뜨는 아침에 마님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해도 밝고 꽃도 피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니 심부름은 뒷전이고 느릿느릿 걷고 서고 앉고 누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달은 뜨고 심부름은 못 하고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그래도 어중씨의 얼굴은 싱글벙글 이네요. 왜 일까요?  
최영철 시인의 자전적 성장소설을 음악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극단 걸판」 특유의 코믹한 연기와 명랑한 음악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입니다.



한국

- 7월 22일(금)~23일(토)
- 금 8PM, 토 3PM, 7PM
- 별무리극장
- 3세 이상 관람가



루마니아

- 7월 26일(화)~27일(수)
- 11AM, 2PM
- 단원미술관 제3관
- 3세 이상 관람가

### 탄다리카 인형극단 후아유(Who Are You)

#### 평등과 다양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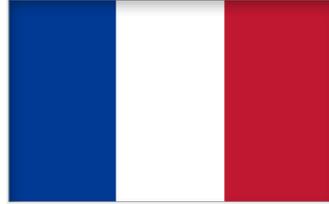
〈넌 누구니?〉는 '제 멋대로 구는 새끼고양이'라는 요정이야기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평등과 다양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요상하게 생긴 부드러운 베개와 함께 이야기는 시작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 달라요. 단 세 명의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연기하지만 다른 목소리, 다른 모양을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배우들은 계속해서 다른 캐릭터가 되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집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새끼고양이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올 2월에 제1종 정식미술관으로 등록을 마친 단원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펼쳐지는인형극 공연...! 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기대하세요~!



라벨 브뤼트  
몬~~~~스터(Moooooooooonstres)

괴물이 생각나서 무서운 걸까? 아니면 무서워서 괴물이 생각난 걸까?

이곳에 생뚱맞게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늑한 침대에서 누워있는 건 참 편안하지요. 침대에선 잠도 자고 책도 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기도 합니다. 밤이 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침대는 으슬으슬해집니다. 잠을 자기로 결심한 우리의 주인공은 잠을 방해하는 두려운 상상의 괴물들을 찢고 조각냅니다. 괴상한 침대 위에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괴물을 쫓아내지만 무서운 상상은 멈추질 않고 뒤죽박죽이 됩니다. 잠을 자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능청스럽게 괴물을 조종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괴물일까요, 속임수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프랑스

- 7월 28일(목)~29일(금)
- 11AM, 2PM
- 별무리극장
- 5세 이상 관람가



독일

- 7월 30일(토)~29일(일)
- 11AM, 2PM
- 별무리극장
- 11세 이상 관람가

퍼포밍 그룹  
지구사용설명서(TRASHedy)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까?

두 사람이 인간의 기이한 진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복잡한 이야기에 빠져들어 요 바로 '생태계의 지능'이라는 주제이지요. 새로운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나고 꾸준히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더미를 발견합니다. <트라세디>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움직임, 자연의 소리로 진솔하고 유머러스하게 인간의 무분별한 소비문화를 풍자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딘가에서... 웨스트윈드 페스티벌에 초청 받은 <트라세디>는 심사위원들에게 "이 작품은 현대 아동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의 복잡한 세상에 대해 유쾌하지만 비평적인 시각을 던지는 연극이다."라고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단원미술관 3관
- 관람료**
  - 전석 15,000원
- 할인**
  - 가족할인(2인권 30%, 3인권 40%, 4인 이상 50% 할인)
  - 청소년 1인 12,000원(키움티켓 이용 시 1인 6,000원 / 문의 481-4028)
  - 예술인패스 30%, 재관람할인 50%, 복지할인 50%
- 예매처**
  -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안산중앙신협과 한국호텔  
관광전문학교가 함께하는

#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3 현악콰르텟 <솔리 판 투티>

오전 11시에 만나는 풍성한 문화브런치 2016 ASAC아침음악살롱의 세 번째 공연이 8월 30일(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아침음악살롱 테마인 '현의 여행'에 걸맞게 국내 최고의 현악 아티스트들이 모인 프로그램으로, 이번 현의 여행에는 클래식기타 연주자로 손꼽히는 박중호를 필두로 첼리스트 정광준, 비올리스트 조형국,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이 모인 '솔리 판 투티'가 무대에 오른다.

'따로 또 같이' 라는 뜻의 '솔리 판 투티'는 클래식 기타가 포함되었다는 독특한 구성 외에도 실력으로 검증받은 네 남자의 앙상블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로 DECCA레이블에서 솔로 음반을 발매한 박중호는 한국 클래식 기타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브람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의 이현웅,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단원을 역임한 조형국, 유럽에서 다수의 콩쿠르를 우승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광준의 조합은 놓칠 수 없는 공연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 아침음악살롱의 풍성함을 더하는 음악 평론가 이석렬의 쉽고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의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올해 아침음악살롱은 안산중앙신협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후원한다. 



클래식기타 박중호

'따로 또 같이'라는 뜻을 가진 '솔리 판 투피',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강렬한 네 남자의 무한 선율이 관객의 마음을 축축이 적셔낸다.



첼리스트 정광준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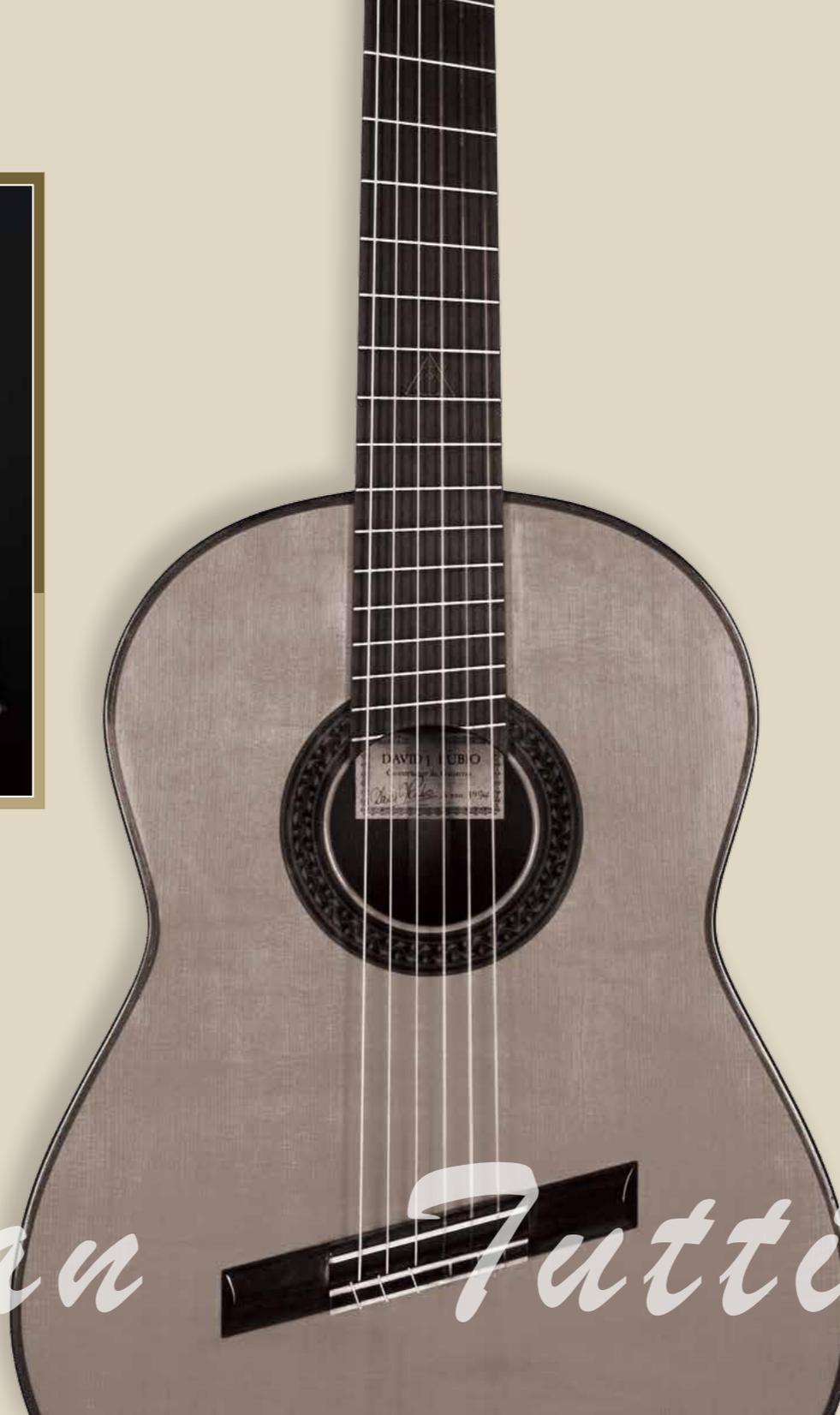


맑은 듯 다르고 다른 듯 맑은  
새로운 색을 가진 현악 파르텟,  
음악평론가 이석렬의 해설이  
결들어진 그들의 흥미로운  
양상블이 풍요로운  
문화브런치를 만든다.



비올리니스트 조형국

# Soli Fan Tutti



### 프로그램

- I. Albeniz – Asturias 아스투리아스 (편곡: Richard Charlton)
  - I. Albeniz – Aragon 아라곤 (편곡: Richard Charlton)
  - P. D. Sarasate Spanish Dances, Op.23 'Zapateado'  
– 자파테아도 (편곡: Richard Charlton)  
– Allegretto
-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16. 8. 30.(화)
- 1일 1회 공연(60분 소요)
- 11:00AM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관람료

- 전석 15,000원(만 7세 이상 관람가)

### 할인

- 뮤즈(무료회원) 가입 시 첫 아침음악살롱 20% 할인
- 두 번째 관람 시부터 5,000원 할인
- 문화릴레이 할인 15%
- 문화·예술인패스 30%
- 장애인·국가유공자할인 50%

### 출연

- 솔리 판 투티(박종호, 이현웅, 조형국, 정광준)
- 해설 : 이석렬

### 후원



### 예매처

- 콜센터 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 단체관람 031-481-4025

# 2016 ASAC 몸짓페스티벌 [몸짓으로 통한다!]

다양한 움직임 장르를 통한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2016 ASAC몸짓페스티벌이,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의 슬로건은 '몸짓으로 통한다!'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섹션별로 진행된다. 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공연장에서 제작하는 움직임 페스티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 한다.

## 이원국 발레단의 <발레 춘향>

올해 몸짓페스티벌의 첫 타이프는 '몸짓 게스트'로 나서는 이원국 발레단의 <발레 춘향>이 꼽는다. 우리 고전 <춘향전>을 발레와 접목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극이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낭만파 작곡가이자 발레음악의 대가 차이코프스키의 곡과, 20세기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다.

또 '몸짓 초이스' 섹션에서는 지난해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수상한 미술작가 겸 퍼포먼스 아티스트 정금형의 작품을 선보인다. 독특한 시선과 색다른 구성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정금형은 '소방훈련 시나리오'와 '심폐소생술 연습' 두 개의 공연으로 안산을 찾아온다. '소방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공연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공연 형태로 관객과 함께 대처해볼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며, '심폐소생술 연습'은 사물을 대상으로 한 '성'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국 발레단



Photo by SeungHee Choi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관람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 별무리극장 전석 2만원

### 예매처

·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얼토당토>**

'몸짓 스페셜' 섹션은 안산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이자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각광 받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얼토당토'를 선보이게 된다. 지난 해 오케스트라와의 협업으로 완성한 '예술을 위한 조화'에 이어 전통 장르와의 호흡을 통해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공연은 약 3시간에 가까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과 움직임의 호흡이 이색적인 만남을 예고한다.

몸짓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몸짓콘서트'는 9월 2일(금)~3일(토)에 공연된다.

현대 무용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갈라 콘서트 형태인 '몸짓콘서트'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안무가 김보람이 프로그래머로 참여, 국내 대표적인 단체이자 중견 안무가 안성수가 이끄는 '안성수 픽업그룹', 차세대 젊은 예술가로 손꼽히는 '고블린 파티',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매력을 선보일 '가다 프로젝트',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출연을 확정했다.

프로그램 발표마다 큰 화제를 모았던 몸짓 페스티벌은 올해도 어김없이 화려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관람료**

· 달맞이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 별무리극장 전석 2만원

**할인**

- 조기예매 25%
- 문화패스 50% (만 24세 미만 학생 예매 시)  
\*키움티켓 이용 시 R석 7,500원 / S석 5,000원 문의 481-4028
- 단체할인 30% (20인 이상)
- 문화릴레이 20%
- 예술인패스 30%
- 복지할인 50%

**예매처**

· 콜센터 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 Culture People

- 32 안산의 젊은 예술인 | 이섭승
- 36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39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극단 걸판」



2016년 <하늘다리>가 안산출신의 젊은 예술인들을 소개 한다. 지면에 소개되는 예술인들은 안산에서 태어났거나 학창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현재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세대 예술인들이다. 이들이 비록 아직은 미완의 이름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 (김춘수 님의 시 '꽃' 中),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를 통해 우리 시, 안산을 빛내는 꽃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들 잘 기억해내라 김대연의 전한다

피아니스트

# 이섬승



안산 출신의 젊은 예술인 세 번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이섬승 씨로, 현재 독일에서 학업과 함께 솔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섬승 씨는 안산중앙초등학교,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수석졸업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졸업 후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eipzig) 수석입학과 석사과정을 최고점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피아노 솔로 최고연주자과정을 밟고 있다. 한예종 재학 중에는 국내 최고권위의 동아콩쿠르 2위에 입상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지난 1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년에 한 번 개최, 국제음악콩쿠르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유니사(Unisa) 국제 피아노 콩쿠르'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산을 대표할 젊은 예술인, 피아니스트 이섬승 씨와의 얘기를 시작한다. 인터뷰는 e메일을 통해 진행, 내용을 정리했다.



● 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섬승입니다. 전 안산에서 태어나 안산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원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한예종에서 김대진 선생님의 지도 하에 재학시절 국내 최고권위의 동아콩쿠르 2위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Gerald Fauth 선생님께 배우며 석사과정을 마치고, 피아노솔로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nexamen) 재학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독일과 유럽에서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음악(피아노)을 접하게 된 계기는…?

▲ 어머니께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치던 피아노에 재미를 느끼면서 피아니스트로서의 꿈을 키웠는데, 미션 음악 전문학교인 예원학교 입학 후에는 그 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반주자로 오랫동안 봉사하시던 어머니의 피아노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곤 하는데 피아니스트로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도 적지않은 않았습니니다.

● 안산과의 인연에 대해… (안산에서 보낸 어린시절 이야기, 특별한 기억 등…)

▲ 안산은 저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곳임은 물론 여전히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기도, 제 자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이죠. 초등학교 시절,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전체조화를 하곤 했는데, 피아노대회에서 받은 상들을 조회시간 전교생들 앞에서 교장선생님이 주시곤 하셨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린 마음에 친구들의 부러움과 박수를 받으며 상을 받는 것에 우쭐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피아노를 더 열심히 치게 했던 동기부여가 되곤 했습니다. 그때에는 별망성예술제가 안산에서 제일 큰 대회였고, 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교부터는 줄곧 서울로 통학하며 10년 동안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새벽 5시 첫 전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중앙역까지 태워다 주시며 저를 격려해 주셨던 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연주자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4호선(안산선) 전철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던 기억과 추억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전철에서 악보도 보고 사람들 구경도 하고 시험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 어깨에 기대 줄기도 하고…

● 유학생활의 희(喜)·노(怒)·애(哀)·락(樂)은…?

▲ 독일로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먼저 유학 온 선배와 친구들이 있어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곁을 떠나 한 번도 혼자 생활해본 경험이 없었던지라 낯선 땅에서의 자취생활은 그리 만만치않은 않았습니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헤쳐나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힘들어하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아



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지만 이곳 독일에서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5년 간의 유학생 생활은 홀로서기를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곤 하는데, 정신없이 돌아가는 한국사회 속에서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지금의 시간이, 앞으로의 제 삶을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정리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으니 말입니다.

❶ 한국과 독일의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차이 또는 분위기는...?

▲ 유럽은 워낙 클래식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던지 기본 바탕에 클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가더라도 오케스트라와 음악학교가 있고 시내 곳곳에는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음악에 대한 지식들도 많습니다. 제가 느끼는 독

일은 걸음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닌 속이 강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하기보단 느리더라도 정확히 하려 하고 유행을 쉽게 따라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보단 검소한 생활을 즐긴다고 할 수 있죠. 또 화려함보다는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깊이의 매력을 지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깊이가 있지만 급격히 발전한 경제와 분위기 속에 요즘은 뭐든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서 그 깊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빨리 정답을 찾고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어찌 보면 그런 편안함 속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이 점점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❷ 자라난 곳, 안산을 현재 같이 공부하는 독일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 무엇보다 산과 바다, 공원이 많은 푸른 도시라고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시간이 날 때면 집 바로 앞 수변공원과 갈대습지공원에서 산책하곤 했는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쉽게 인접해 있는 산과, 또 멀리는 대부도에서의 추억들도 자주 소개하곤 합니다.

❸ 주요 수상경력과 현재의 활동영역은...?

▲ 유년기시절,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와 별망성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안양대콩쿠르 1위 입상을 비롯한 벅스타인 삼익피아노콩쿠르, 인터내셔널 피아노콩쿠르, 음악저널, 숙명콩쿠르, 수리콩쿠르 등에서 모두 상위 입상했고, 한예중 재학시절에는 국내 최고권위의 동아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했습니다. 또 국제콩쿠르에도 많이 참가했는데 세계 3대 콩쿠르인 퀴엘리자베스콩쿠르 오디션에 선발되기도 했었고, 특히 올해 1월에는 4년에 한번 남아공에서 열리는 Unisa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주자로서는 베를린 필하모니홀 독주회를 비롯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협연, 멘델스존하우스 독주회 등 주로 독일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한국에서의 실내악 연주회 경험도 여러 차례 갖고 있고요.

❹ 피아노를 전공하는 또 다른 안산출신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구체적으로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후배나 음악전공을 위해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 음악은 길고 멀리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로 혹은 유혹들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멀리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음악은 연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것인 만큼 피아노를 컨트롤하기 위해 너무 얽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그 연습시간을 각자가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❺ 피아니스트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 아직 공부 중에 있는데 남은 두 번의 졸업연주를 잘 마무리

하고 올해 한국에서 세 번의 실내악 연주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마음을 울리는 솔로와 실내악 연주자로서의 길을 걷는 것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❻ 끝으로 안산에 있는 친구, 가족, 시민들에게 젊은 예술인으로서 인사 한 말씀해 주신다면...?

▲ 안산 출신의 재능 있고 인정받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의 초청으로만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닌 안산출신의 다양한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산의 문화예술 공연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 날을 위해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김선광

프로필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Hochschule für Musik und Theater Leipzig) 석사 졸업
- 동 대학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nexamen) 재학 중

수상경력

- 13th Unisa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3위
- 동아음악콩쿨 2위
- 수리콩쿨, 벅스타인 삼익 피아노콩쿨, 서울청소년실내악 콩쿨 2위
- 베를린 필하모니홀, 멘델스존 하우스,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 피아니스트 시리즈 독주회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Haydn-Kammer Orchestra와 협연
- Johannesburg Philharmonic Orchestra,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서울예술고등학교 정기연주회 협연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창작 마임극 〈학도〉

### 나라에 꿈을 바친 학도병의 이야기... 젊은 날의 꿈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극단 「고등어」가 오는 8월 창작 마임극 〈학도〉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공연한다.

창작 마임극 〈학도〉는 6·25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의 숭고했던 희생을 돌이켜보고 오늘날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청춘,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꿈 많은 학생들은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꿈을 받쳐 참전하게 된다.

전쟁의 참혹성으로 인해 세상은 아름답지 못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숭고했고, 그들의 청춘은 꿈처럼 아름답고 희망찼다.

그렇다면 시간이 반세기도 더 지난 오늘날, “지금의 청소년들은 아름답고도 희망찬 그들의 청춘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을까? 청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극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꾸지 못한, 찾지 못한 꿈을 찾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기라고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한다.

### 춘천마임축제에서 초연... 8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피날레

마임극 〈학도〉는 지난 5월 춘천마임축제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6월 29일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한 문화가있는날 지역거점 특화 프로그램 〈문화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오는 7월 28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ricca ricca festa에 참가해 공연을 진행하며, 8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총 6회 공연을 올린다.



### 안산문화재단의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운영

「고등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안산문화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극단이다. 이에 안산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직접 공연을 제작함으로써 자신들의 재능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교육하고 있는 강사들은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은 예술인들의 창작품들을 청소년 극단 「고등어」를 통해 무대에 올리고 있다.

「고등어」는 2013년 워크숍 공연인 마임극 <소나기>를 통해 안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한 뒤 2년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14, 2015 오키나와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 참가를 비롯해 춘천마임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참가했으며, 제11회 행복한 세상 전국청소년연극제 단체상 금상, 개인상 금상·동상, 지도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제4회 서울가톨릭청소년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극단 결판」

7월, 8월, 그리고 10월 안산무대에...



### 안산문화재단 신규 상주예술단체 「극단 결판」의 명랑음악극

2016년 안산문화재단에 상주단체로 선정된 「극단 결판」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가장 재미있게 하자!', '우리의 공연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간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2005년 경기도 안산에서 창단한 젊은 극단이다. 20여 명의 단원이 작가, 연출, 배우, 스태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극장과 광장, 실내와 야외를 중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쾌한 연극 공동체이다.

이들이 신작공연 음악극 <어중씨 이야기>를 7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무대에 올린다.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인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안산>의 개막작이자 대한민국 대표작으로 선보일 이번 공연은 다가오는 8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믿고 볼 수 있는 검증된 작품으로, 최영철 시인의 자전적 성장소설 『어중씨 이야기』를 음악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어중씨 이야기>는 결판의 '명랑음악극 시리즈' 그 두 번째 작품이자 신작공연이기도 하다.

스토리는 시골마을에 사는 '한어중'이라는 느릿한 성격의 사람이, 마님의 부탁을 받고 장터에 물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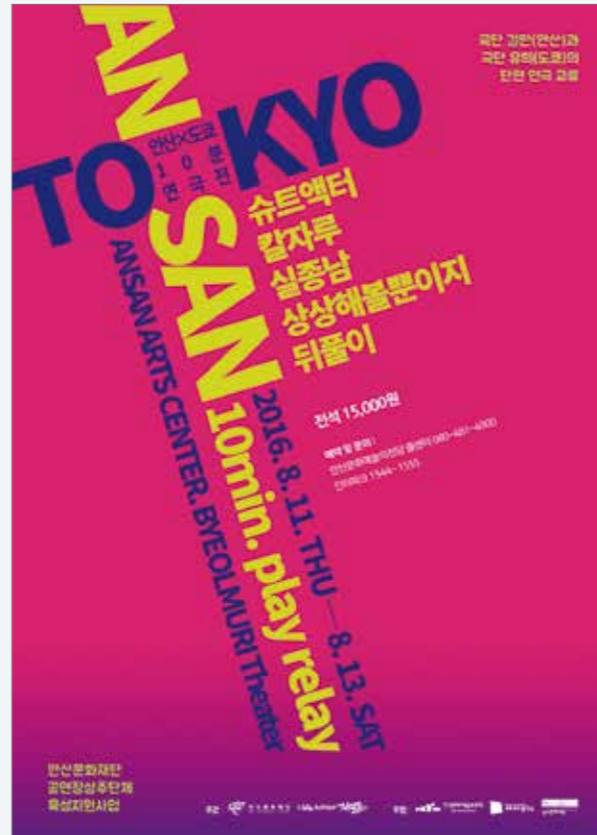




사려깊다 물건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유쾌한 허탕을 다룬 작품이다. 계획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내키는 대로 해보는 삶의 미학을 다루고 있는 이번 공연은 「극단 걸판」 특유의 코믹한 연기와 명랑한 음악으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신나는 공연이 될 것이다.

#### 〈안산x도쿄 10분 연극전〉을 통해 연극 교류의 장 열어

지난 5월 일본 도쿄 닛포리 지역에 위치한 '닛포리 Art Cafe 모즈'에서 공연, 한국-일본 양국 간의 정서적 교류를 이루는데 큰 성과를 거둔 교류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다가오는 8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다시 한 번 교류 공연을 갖는다. 「극단 걸판」과 함께 교류 공연을 가지는 극단 유희는 2013년 창단된 단체로 연희단거리패 출신의 한국인 연출가 배미향이 이끄는 일본 극단이다. 이번 안산 공연의 주제는 '걸판 작가전'으로 극단 유희는 오세혁 작가의 〈갈자루〉, 윤미희 작가의 〈상상해 볼 뿐이지〉, 「극단 걸판」은 〈슈트액터〉와 〈실종남〉을 공연한다. 또한 걸판의 김상민 작가가 쓴 〈뒤풀이〉를 모든 출연진이 함께 연기하며 연합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활동 기대

10월에는 세계명작동화로 유명한 빨강머리 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Anne〉, 안산지역의 곳곳을 취재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백'으로 정리하고 걸판의 배우들과 실제 주인공들이 함께 '무대'에 서게 되는 퍼블릭프로그램 프로젝트인 〈독백만인보〉 등 안산의 지역커뮤니티와 유대를 강화하고 꾸준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네트워킹 강화 및 이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 일시

- 5월 11일~13일

#### 관람료

- 달맞이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 별무리극장 전석 2만원

#### 할인

- 조기예매 25%
- 문화패스 50% (만 24세 미만 학생 예매 시)  
\*키움티켓 이용 시 R석 7,500원 / S석 5,000원
- 문의 481-4028
- 단체할인 30% (20인 이상)
- 문화릴레이 20%
- 예술인패스 30%
- 복지할인 50%

#### 예매처

- 콜센터 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Culture

心터

- 44 新 문화로드 |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
- 48 전시리뷰 | 권터 그라스 특별전

C u l t u r e T r i a n g l e o f A N S A N

시민과 젊음,  
그리고 문화 삼중주

### 안산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 정문 앞 광장

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젊음의 거리',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필두로 대학길과 안단테광장까지 시민들과 젊음의 하모니가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그 싹을 틔우고 있다.

- 글 01. 안산문화광장
- 심는 02. 중앙역 광장
- 순서 03.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
- 04. 한대앞역 광장

안산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간다. 이에 <新 문화로드>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新 문화로드'는 안산의 여러 지역 중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갖춘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세 번째로 소개할 新문화로드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을 소개한다.

#### 지역문화의 확장과 다양성을 이끄는 문화광장



이다. 이탈리아어 andare(간다)의 현재분사이자 '걸음걸이 빠르기로'의 뜻으로 '느리게'를 나타내는 이 음악용어를 빌려 지어진 작은 광장이다. 이 광장의 특징은 지역사회와의 열린 제스처를 보이며, 주변에 조성된 마을과 시민들의 인 지적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대학과 대학촌의 문화적 연계가 가능한 물리적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곳에선 다색의 문화콘텐츠 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 행사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나눔 활동, 그리고 마켓 등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로 오가는 학생들의 젊은 움직임이 활기차다. 정갈하게 정돈된 대학가 주변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상가들이 즐비하고, 캠퍼스의 인상을 좌우하는 정문 조형물들은 지역과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중 이색적 공간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안단테 광장

#### 낭만부터 즐거움까지

'대학동'이라 불리는 캠퍼스 앞 자취촌 일대를 무대로 자생한 대학생 커뮤니티 '자토펙토리(<http://zattofactory.wix.com/zatto>)'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스스로 가꾸는 문화기획단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들의 활동은 다소 삭막할 수 있는 골목길에 벽화를 그려 넣어 이색적 분위기를 만든





잊지 못할 아픔과 경제침체로 상처에 상처를 더했던 시민들과,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안산의 새로운 가능성.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네트워드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패러다임이 주목된다.

다던가, 패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수거함 자체 디자인 및 설치,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안단테광장 운동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문화에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주변의 상점들은 각각의 특색을 내세워 요즘 세대들을 위한 트렌드를 주도하며, 안산의 특색 있는 상권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한양대 학생들 외에도 중·고등학생들도 이곳을 자신들만의 핫 플레이스로 지목할 정도다.

###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이 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동명문거리만들기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왔다. ‘환경개선’과 ‘공동체의식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1단계는 차선을 축소하여 보행중심의 대학길과 중앙에 회전 교차로를 도입해 원활한 차량의 통행을 유도했다. 2단계는 행복길을 조성해 이팝나무길을 만들고 구간별 테마를(젊음, 휴식, 자연) 그려 넣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엔 3단계 마지막 사업인 우거진 수목과 부족했던 가로등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민을 위한 태양광을 이용한 바닥등과 장식등을 설치해 우범지대라는 이미지를 개선했다. 또 캠퍼스 정문 주변에 산책길을 조성하고 오브제 벤치를 놓아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오가는 이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의 제공은 물론 외부작가들을 초빙해 주변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안산만의 독특한 문화 생태를 이루는 다문화는 상생의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에리카캠퍼스를 필두로 학생들과 다문화가정이 한데 어우러져 소풍 같은 풍경을 만들기도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지속적 관계를 통한 진정한 상생이 목적이다. 현재는 다양한 형태로 매년 안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 규모와 콘텐츠도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은 ‘상생’과 ‘함께’라는 키워드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생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

글 노호성

전시리뷰

# 권터 그라스

##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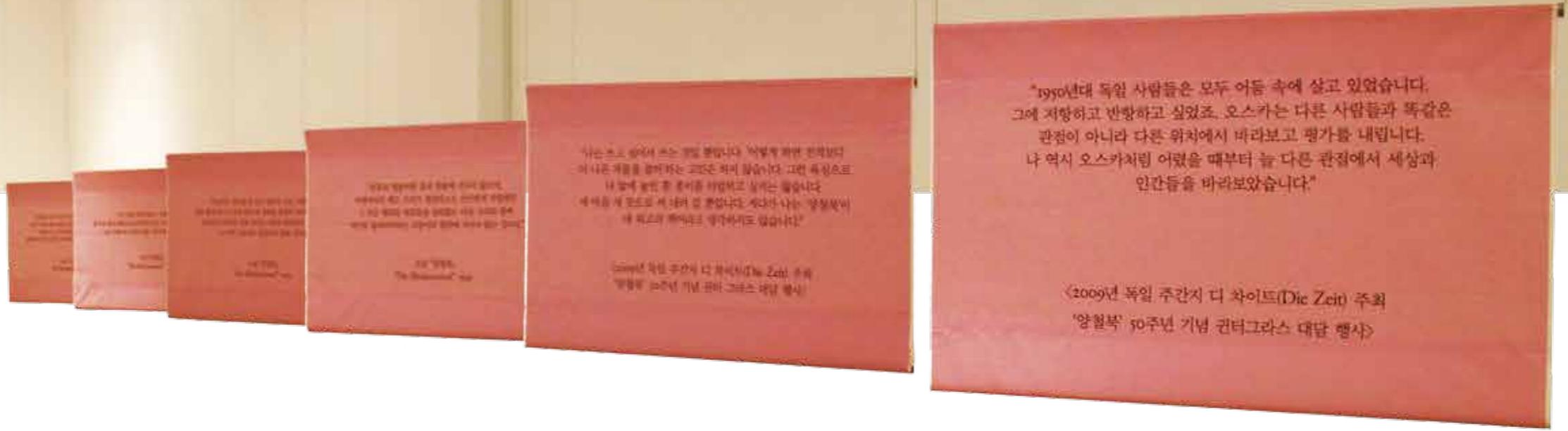


글 : 하계훈  
(미술평론가,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초빙교수)

작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노벨상 수상작가 <권터 그라스(Gunter Grass, 1927-2015) 특별전>을 안산문화재단이 주관, 단원미술관에서 지난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해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행사로 준비됐다고 한다. 권터 그라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하면서 행동하는 지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실 참여의 활동가였다. 실제로 소설 쓰는 일 이외에도 선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로 유권자연합을 결성한다든가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100회가 넘는 연설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하는 지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권터 그라스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글을 쓰는 일만큼이나 조각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자신의 문학작품이 출간될 때 표지나 삽화 등을 직접 그려 넣기도 했다. 권터 그라스는 자신을 조각가라고 소개하고 부업으로 글쓰기를 한다는 식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권터 그라스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기회로 판화 80여 점과 10여 점의 조각 외에도 자필 시 원고와 <양철북>포스터 등 작가의 문학과 미술 세계를 접목시킨 폭넓고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된 보기 드문 기회였다. 문학에서 권터 그라스에게 '독일문학의 이단아'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한다. 독문학 특유의 세련미나 절제, 내면의 심리분석과 정신세계의 탐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별명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에게 노벨문학상의 영광이 부여되기 전까지는 독일문학계에서 다소 불만스러울 수 있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일의 현실을 문학뿐만이 아닌 음악과 미술, 그리고 춤과 요리 등 다중적인 감각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파악하였다. 또 그 결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문학작품으로 때로는 음악이나 무용 혹은 미술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작가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다중감각이 압도하는 작가정신이자 감수성의 발현이었다. 이번에 출품된 조각 작품들은 글 쓰는 이의 여가활동이자 그 산물로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작가의 작품 전체를 보여줄 수 없어 주로 소품 위주의 10점 정도가 소개됐지만,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손안의 낚치>와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춤을 모티브로 한 브론즈 인물상들은 재료의 특성과 인물의 동작에서 드러나는 곡선적인 율동감, 그리고 생략된 듯 묘사된 인체의 중요한 특징들이 빛과의 상호작용으로 볼륨감을 드러내는 형태를 통해 작가의 내공을 은근하게 과시하고 있다. <손안의 낚치>는 그 자신이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책 <낚치>를 연상시킨다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양철북 이후 작가의 최대 야심작으로써 종종 율리시스에 비유되기도 한다. 또 이번 전시의 주종을 차지했다고도 할 수 있는 판화와 드로잉 작품들은 보다 흥미롭고 그 표현에 있어서 폭넓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나무와 인물을 그린 드로잉에서는 작가가 목탄, 연필, 펜 등 도구에 상관없이 선을 자유롭게 구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칭으로 표현한 자화상에서는 작가로서의 재현능력과 묘사력을 증명해보이고 있다. 초상화에서도 작가가 관심을 가진 낚치나 깃털로 만든 펜 등이 등장함으로써 작가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준다. 특히 무당개구리와 그 앞에 놓인 작가의 만년필을 에칭으로 표현한 작품은 작가의 묘사능력이 형태의 재현을 넘어 화면 속 모티브들의 속성까지



재현해 낼 수 있는 고도의 조형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어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인 것은 깃털 펜을 굳게 쥐 작가의 손을 그린 작품인데 넘치를 쥔 손 못지않게 권터 그라스의 문학 창작에 대한 배경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시에서 작품들과 함께 소개된 권터 그라스의 자필 원고와 포스터 등의 아카이브는 작가의 삶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자료들이었다. 단원미술관은 이러한 작품과 자료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전시 이외에 매주 토요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 그라스를 복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연회를 열고 주한 독일문화원과 협력해 독일 영화를 상영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관람객들이 작가 권터 그라스와 그의 고국인 독일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안산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전시를 전격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신선한 경험과 감동으로 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전시기간 동안 관람객의 숫자가 평소보다 크게 상회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증명됐다. 이번 전시가 미술관의 여러 전시 가운데 하나로 그치지 않고 단원미술관의 여러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향후 더 많은 좋은 전시들이 단원미술관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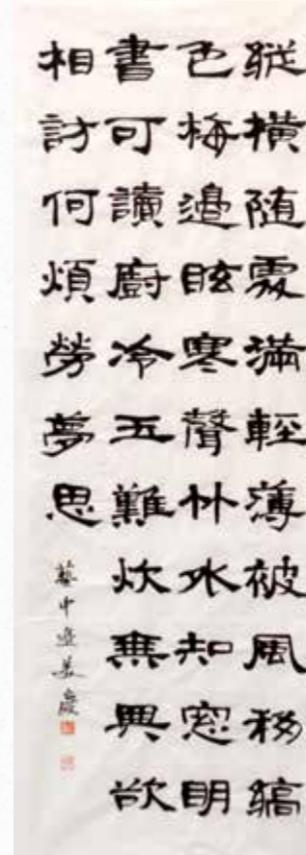
- 54 2016단원미술제 | 서예·문인화展
- 58 여름기획전 | 안산유람<sup>安山遊覽</sup>
- 60 안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 61 문화예술 전시정보

묵향의 꽃;  
붓 끝으로 피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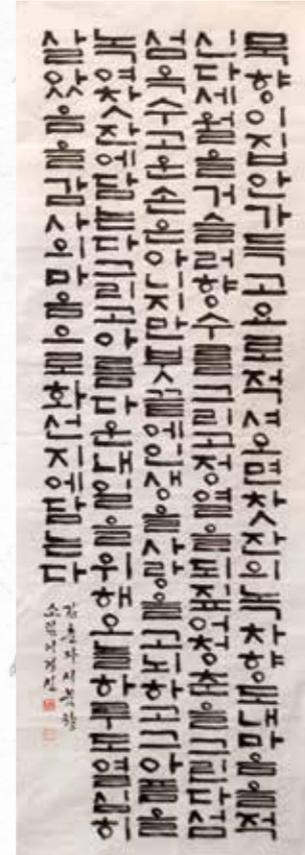
# 서예·문인화展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6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 전시가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6일간 단원미술관에서 개최된다.

2016.  
07.05 화 ——— 07.10 일



대상\_서예한문\_변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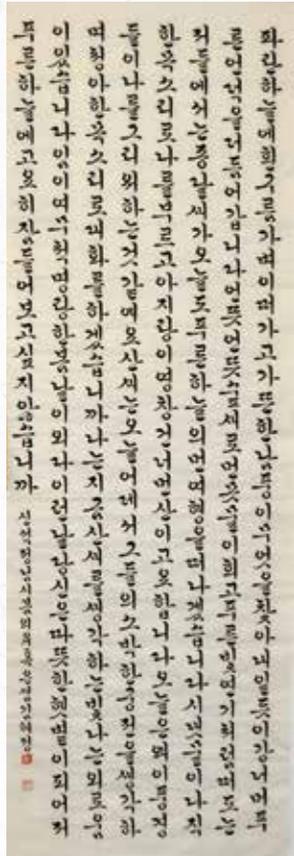


최우수상\_서예한글\_이경신



최우수상\_문인화\_정석호\_야생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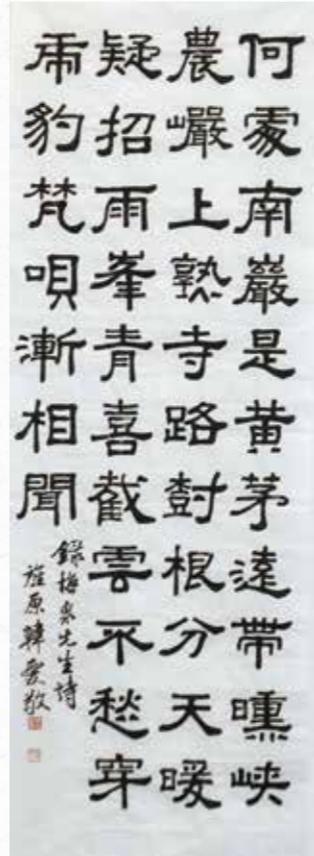
2016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展은 수상 작품 310점을 비롯해 역대 추천·초대작가들의 작품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한 단원미술제는 조선시대 문예부흥기를 이끌었던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과 업적을 기리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서예·문인화부문(7월)과 미술부문(10월)의 수상작품 전시와 함께 시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미술 행사를 펼치고 있다. 수상작 전시에서는 대상 수상자인 변미경 씨의 '삼봉집권지이(서예한문)'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삼봉 정도전 선생 시를 예서로 표현한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서체미를 잘 갖추고 있으며, 필획에서 기예의 뛰어남이 느껴진다는 심사평을 받은 작품이다. 또 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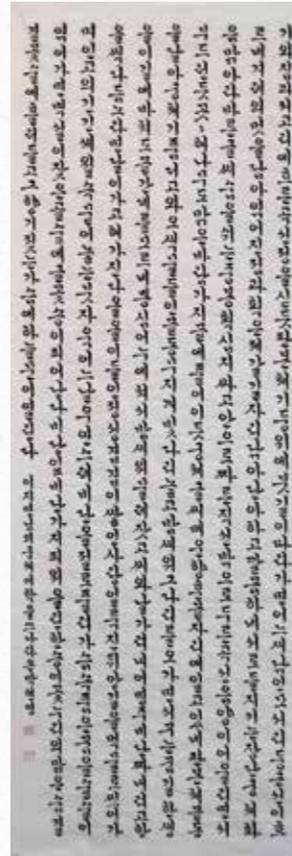
우수상\_서예한글\_김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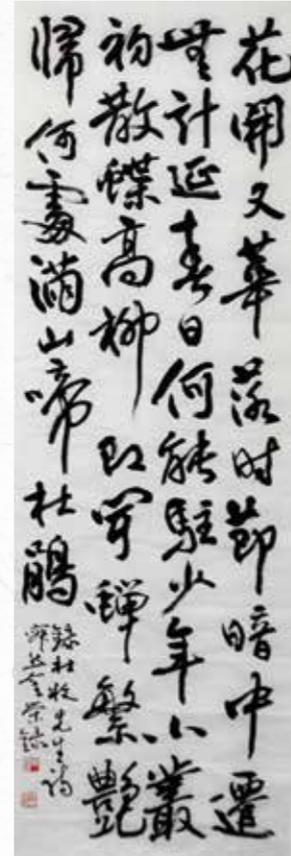
우수상\_문인화\_최경희



우수상\_서예한문\_한애경



우수상\_서예한글\_박현영



우수상\_서예한문\_김영록



우수상\_문인화\_김민선

수상의 이경신 '김춘자 시 묵향', 정석호 '야생마'와 우수상의 김해정 '신석정 봄의 유혹', 박현영 '궁채미학', 김영록 '창창죽림 시', 한애경 '매천 선생 시', 김민선 '묵매화', 최경희 '석국'의 작품들과 수준 높은 입상작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서예는 예로부터 그 시대를 부응하는 유희의 미를 추구해 왔다. 이에 조형미나 필선미가 작가의 창작욕구 목표가 되었고 작가의 심혈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여백과 짙은 묵향으로 보는 이의 심적 안정과 시각의 즐거움을 주는 문인화는, 다양한 작품이 선정돼 관람자로부터 묵향의 정취에 흠뻑 취해 무아지경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서예·문인화展 시상식 및 개막식은 오는 7월 5일 단원미술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

난해 국내 미술계에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던 미술부문의 선정작가 공모는,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포트폴리오 작품접수가 진행된다. 올해는 한층 심도 있는 운영방식으로 대상 수상작가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지며, 해외전 개최(선정작가 전원)기회도 지원한다. [▶](#)

전시명

· 2016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展

전시일정

· 2016. 7. 5.(화) ~ 7. 10.(일) / 6일간

전시장소

· 단원미술관

전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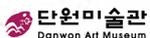
· 2016단원미술제 서예·문인화  
· 수상작 전시와 역대 추천, 초대작가 작품 전시

#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

# 2016. 7.22 - 8.31

- 강효명
- 국형걸
- 김동호
- 문인환
- 민정기
- 박상화
- 유미연
- 이재삼
- 정은경
- 진현미
- 최소영

주최·주관



# 안산산유람

## 安山遊覽



### 여름기획전

## 안산 安山 | 유람 遊覽

#### 서해 언덕에 펼쳐진 안산의 옛 숲, 단원

‘단원’이라 하면 가장 먼저 김홍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단원(檀園)은 김홍도(金弘道)가 주로 사용하던 호(號)로, 안산의 행정구역 중 단원구(檀園區)의 단원과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단원을 글자대로 직역하면 ‘박달나무 동산’을 말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1750년경 서해 언덕에 펼쳐진 안산(安山)의 옛 숲이었다고 한다. 오늘날 그곳의 풍경은 어떠한가? 과거 울창한 박달나무 동산을 대신해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물이 흐르고 산이 우거진 과거 안산의 풍경은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안산의 옛 풍경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 ‘살기 좋은 고장, 안산’

1797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경기도 안산에 하루 머물면서 지은 시를 보면 안산을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 했다. 안산은 공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거대한 공단을 만들었고 바로 옆에 12킬로미터가 넘는 시화방조제를 막아 거대한 인공호수인 시화호를 만들었다. 공단을 안고 있는 시화호는 푸른 녹지를 품었고 호수 남쪽의 갯벌지대는 갈대밭이 있어 시화호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과거 단원(檀園)의 풍경은 잊혀졌지만 안산은 여전히 살기 좋은 고장으로 과거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

#### 안산의 옛 풍경을 그리다

2016년 여름, 단원미술관의 기획전시는 안산의 옛 풍경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과거 단원(檀園)에 남

아있던 흔적들을 찾거나 상상해 단원의 풍경과 현재의 풍경을 다양한 현대 미술 작업들로 미술관을 채운다. 아카이브와 더불어 전시작품들이 단원미술관 1관을 채우고 미술관 앞마당 야외에는 대형 설치물이 전시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공간 안에서 고지도와 고서화를 통해 천년 안산의 모습을 찾아본다.

여름기획전 <안산유람>은 오픈 전부터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안산에 살았던 사람 혹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산 풍경의 사진들을 수집하여 아카이브 할 예정이다. 안산 시민들이 만든 안산의 풍경, 너와 나, 우리의 기억으로 만드는 안산의 풍경을 통해 과거 안산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는다.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1일간 전시 진행 중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 시민들이 안산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단원**

**전시명** 안산 시승격 30주년 기념 단원미술관 기획전 <안산유람 安山遊覽>

**전시기간** 2016. 7. 22.(금) ~ 8. 31.(수) / 41일간  
※ 전시기간 중 휴관일 없음

**참여작가** 회화, 영상, 설치, 미디어 아트 11명 (강효명, 국형걸, 김동호, 문인환, 민정기, 박상화, 유미연, 이재삼, 정은경, 진현미, 최소영)

**전시장소** 단원미술관 1관, 야외전시장

**관람료** 일반 2,000원 / 초·중·고, 미취학아동, 군인 500원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무료 관람(동반 1인 포함)  
※ 경기도미술관 관람권 지참 및 성인 단체 (20인 이상) 관람시 50%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주최·주관**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

안 산 문 화 재 단   제 종 길   이 사 장   부 부 합 창 단   정 기 연 주 회   게 스톨   출 연

# 안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공연에 임미정 사모와 함께 호흡을 나눔



안산문화재단 제종길 이사장 부부가 합창 무대에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펼쳐진 '안산 사랑의 부부합창단(이하 안산 부부합창단)' 정기공연에서다.

안산 부부합창단은 '나를 낮추어 모두를 높이는 합창을 부른다'라는 취지하에 지난 2013년도에 창단된 부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보다 나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업군의 부부로 구성되었으며,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 전 지역 부부의 연합 합창단으로서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종길 이사장 부부는 유니폼을 맞춰 입고 나와 특별 단원으로 프로그램 중 일부 순서에서 부부합창단원들과 호흡을 맞췄다.

제종길 이사장은 "합창은 나를 낮춰 우리를 높이는 행위이고 화목한 부부, 건강한 공동체는 시대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손길이다."며 "공연을 위해 아내와 다른 부부들과 함께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가족 사랑과 부부애를 더욱 키워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문화**

# 문화예술 전시정보

## 경기도미술관 <기획전시 안내>

### 백화만발 만화방창(百花滿發 萬化方暢)

- 백 개의 그림, 만 가지 이야기  
/ 2016. 7. 7.(목) ~ 2016. 9. 18.(일)

경기도 소재 서른아홉 개 미술관의 소장품을 한 데 모아 소개하는 전시

- ▶ 협력 : 경기도의 39개 미술관
- ▶ 문의 : 031-481-7031



### G-Live : Fabien & Taeyoung / 2016. 7. 7.(목) ~ 2016. 9. 18.(일)

라이브페인팅 / 2016. 7. 7.(목) ~ 2016. 7. 20.(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관람객에게 노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소개

- ▶ 참여작가 : 파비앙 바르쉐 / 장태영
- ▶ 문의 : 031-481-7038

문화나누美

#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예술타리'>는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현재

총 누적금액 **410,807,43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의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2015, 2016년 후원 명단」

햇빛회원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농협안산시지부, 안산도시개발

달빛회원

라이브아트, 쿠키스무역, 크레디아인터네셔널, 안산신협, 안산중앙신협

기쁨회원

신우정보통신, 김중구

보람회원

정화영, 남승완, 이니티움

나눔회원

예술타리 저금통

